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 하나님이 보시는 종교인들

(아모스 4장 1 - 13절, 5장 1 - 5절)

인간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안타깝게 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육신 사건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서 신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식 밖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는 해결 받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미물만도 못한 인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뽀엘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좇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 1.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암 5:21).

우리는 자신의 종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찬송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암 5:24).

정의와 공의가 없이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순종과 충성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증 되고 더러운 행사가 될 뿐입니다.

### 2.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4:1).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한 것은 무서운 책망의 소리입니다. 소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우유를 생산해도 결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비유한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공평성을 상실했음을 말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떤 이유든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공평을 상실하는 행위가 됩니다. 비록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입니다. 법은 국가와 백성의 모든 면에서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힘없는 자가 학대를 당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난 일입니다. 법은 힘없는 자를 돕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분에 상관없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차별대우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죄로 하나님께 지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술에 취하므로 자기 상실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잊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리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4:2)

추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갈고리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낚시로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는 물을 떠나게 됩니다. 물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심판자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 3.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

“뽀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서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뽀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

이라”(5: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뽀엘과 브엘세바와 길갈로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에서는 뽀엘에서부터 북쪽에서는 단까지 신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뽀엘은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곳이며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하기를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뽀엘은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뽀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매년 8월 15일을 국가의 경축일로 정해서 제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왕상 12:31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뽀엘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너희는 뽀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 내어 선포 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4:4-5).

뽀엘은 이미 우상의 본산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4).

하나님은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여러분,

우리는 뽀엘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좇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제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및 열린 프로그램 개강

## 내일 3월 31일(월) 과목별 일제 개강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도하며 매년 2회 10주간씩의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23학기 과정과 성도와 이웃 주민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성경대학, 제5학기 서울 주부대학, 제6학기 살롬 경로대학의 모든 과정이 내일 31일(월) 일제히 개강하여 총 10주간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교역자들이 찾아와 강의장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호응의 열기 속에 계속되어져 교계를 대표하는 세미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열린 프로그램은 우리교회가 대차동 예배당 시대를 열며 성도

와 이웃주민을 위해 열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관심 있는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올해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 더욱 내실 있는 강의로 준비되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보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평생교육과 신앙성장의 귀한 자릴 활용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제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진행에는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지금껏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학기에도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좋은 결실 맺도록 기도한다.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서울성경대학에 초대합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온 식구를 위해, 늘 "더 잘.....!"을 꿈꾸고, 자신을 발견하며 삶의 값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만들어 가는 주부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가정과 잔잔한 삶의 여유의 기쁨을 만들어 가길 소원합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여성의 입장에서 주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월요일로 지치고 피곤할 때 바쁜 일상 속에서 차한 잔의 여유가 그리운 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주에 걸쳐 귀한 강좌와 사랑의 나눔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셔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아름답고 소중한 자신의 자리를 알뜰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소망과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가정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602호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 한상은 목사(서울성경대학 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제13학기 서울성경대학이 내일 (3/31, 월)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개강하여 10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 성경대학은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복음적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중에는 성경 과목으로 요한복음, 디모데전후, 열왕기상하, 에스겔반이 개설되며, 주일에는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 전도학교, 평신도신앙강좌반, 요리문답반 및 찬양대 양성반이 개설되게 됩니다.

주중에 개설되는 성경반은 새벽, 오전, 저녁시간에 각각 개설되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가능한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개설되는 강좌들에도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특히 교사나 교구일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양성반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하나 이상의 과목에 참석하시어 이번학기 하나님 앞에 한걸음 더 나아가시는 귀중한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살롬 경로대학에 초대합니다

### 이용식 목사(살롬 경로대학 지도)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죽은 것만 같았던 마른가지들이 새싹이 돋고, 움이 트기 시작하니 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 살롬 경로대학을 개강하게 하시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살롬 경로대학에 오시면 새 힘을 얻습니다.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양의 아름다움을 노래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씹습니까? 그러나 우리 살롬 경로대학은 애쓴다고 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65세 이상 되신 분이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대학교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 주부대학에 초대합니다

### 윤영국 목사(주부대학 지도)



아내의 미소로 아침이 열리고, 주부의 손맛에 건강이 열매 맺고, 어머니의 기도로서 가정은 살아 숨쉬습니다.

아내요 어머니요 여자로서 창조된 주부는 위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삶과 사역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요리하시는 당신께 신선한 재충전과 친교와 교제의 장을 준비하여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서 만드시고 축복하신 가정, 이 가정의 행복은 주부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 고등부 고3 결연 기도회

## 오늘 10시 40분 601호에서

인생의 힘든 시기중 하나인 고3을 맞은 학생들과 기도의 결연을 맺고 후원하기위한 고등부 기도결연식이 오늘 10시 40분 601호실에서 열린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고3학생들에게 기도로 후원하여 그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단련된 정병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한다.



# 나눔의 집에 물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교회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가정에서 필요치 않는 옷가지나 물건을 기증받아 필요하신 분들에게 1점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기증하여 주셔서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 세미나에 참여하는 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필요한 물품을 많이 사 가고 있다.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개강을 하게 되면 또 많은 교역자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시게 되나 현재 나눔의 집에는 의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 집에서 봄을 맞아 집안을 정리하다 혹 이웃과 나눌만한 의류나 물건을 보면 나눔의 집에 기증하여 필요한 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

# 유아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 5월 15일(목) 11시~14시

유아부 자모회에서는 유아부 교사회 후원으로 5월 15일(목) 11시부터 14시까지 702호 유아부실에서 유아부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를 위한 물건을 5월 11일까지 매주마다 접수하고 있다. 이미 자녀들이 자라서 쓰지 않는 의류, 신발, 장난감, 도서류, 기타 유아용품등 각종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린다.

# 농어촌 100교회 후원 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농어촌100교회 후원이 또 추가되게 되었다. 이미 모든 접수를 마감하였으나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이 늘려 더 추가하기로 하였다. 후원자와 후원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100교회 후원 추가		
109 박산교회	이정심	정치은 · 김영현
110 월전교회	문경두	신훈기장부
111 소량도 교회	박의자	4-6디락방 · 차도훈, 양태영



# 청년부 Small Group을 소개합니다.

## 인재명 (청년부)

토요일 오후 청년부 모임이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 안에서 관심사와 취미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모임인 Small Group을 가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호회의 성격과 구분되는 Small Group모임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끌여가는 다른 모임들과는 달리 그 생성과 운영의 많은 부분들이 청년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자발적인 청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청년부의 양적 질적 부흥은 물론 교회 안에서 보다 깊은 성도들과의 교제 및 전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시작한 청년부 Small Group은 청년들의 열정과 다양성을 반영하듯 현재 7개의 모임이 생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디카 Small Group. 디지털카메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청년부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행사를 카메라에 담는 것은 물론 청년회원들의 주중 취미활동으로 이어지는 모임으로 청년부 내 막내포레인 78포레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 중창 Small Group. 이름 그대로 남성중심의 Small Group으로 주일과 토요일모임을 이용하여 중창단을 구성, 연습 중입니다. 아멘 관련악단과 협연이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부 행사 시 공연도 준비 중입니다. 한편 퓨전골로세 Small Group은 10월로 예정된 전교인 성경암송 대회를 준비하는 Small Group로, 매주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성경공부를 보다 심화하여 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성경개론반 Small Group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약성서를, 하반기에는 신약성서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청년회원은 자연스럽게 성경일독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Small Group모임도 있습니다. 먼저 JF2002 축구모임 Small

Group. 축구로서 전도하는 Small Group이라는 취지아래 함께 모여 운동하며 더불어 주변 교회 청년부 및 각 대학 축구 동아리들과의 정기적인 경기를 통해 교제하며 전도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Small Group으로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또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겨울에는 스노보드를 타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매들을 위한 메이크업 Small Group모임도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매주 메이크업에 관련된 활동 및 기본적인 에티켓에서부터 코디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친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준비 중인 Small Group은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 Small Group, 맛있는 요리를 함께 준비하며 배우고 또 나아가 여러 청년부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리 Small Group등등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교제 중심의 Small Group과 더불어 청년들의 개인 신앙의 성숙을 위한 내적치유 Small Group, 기도 Small Group, Q.T Small Group등도 청년부 안에 생성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각 Small Group은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야만 만들어 질 수 있으며 현재 7개의 Small Group에는 50여 명의 청년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각 Small Group모임에는 Small Group모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Small Group chief가 세워졌는데, 각각의 chief들도 활발한 상호교류를 가지며 청년부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청년부 홈페이지에는 벌써 각 Small Group들의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어, 그 활발한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Small Group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과 삶의 부분으로 만들어가며 다양한 청년들의 은사들이 보다 개발되고 다듬어 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일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 유숙인 집사(루디아여전도회장)

루디아 여전도회(41세 -45세)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업인 '밥퍼'로 잘 알려진 '다일복지재단'에 일일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봉사할 곳을 결정할 때 "보다 어렵고 가난한 곳"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내 복지시설들의 대부분이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라면으로 시작한 점심이 이제는 매일 200-500명까지 무의탁노인과, 배고픈 이웃에게 라면이 아닌 밥으로 무료 배식이 이어진다고 하니 이것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까지지는 도착하여야 한다는 그곳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9시에 교회서 출발한 우리는 결코 가깝지 않은 그곳을 갈 동안 차가 막힐까봐 조바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막히는 길도 뚫어주시는 법이라며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는 김혜란 집사님의 확신이 들어맞아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오배식이므로 아직 2시간이 더 남았는데도 식당에는 200명가량의 어르신들이 뻘뻘히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밖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날마다 봉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당일 밥과 국은 마무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배식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날 사용할 시금치와 무를 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날의 점심 메뉴는 불고기, 김, 김치, 미역국과 밥이었습니다. 정오가 되고 "땡땡땡"하는 옛날 학교종소리가 울리면서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 최성욱 전도사님은 별로 한 일도 없는 우리를 향해 "서울교회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봉사뿐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소개와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권면의 인사를 하고 공동체 기도를 드린 후 배식에 들어갑니다. 그 날 배식인원이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아직까지 이런 모습 속에 있음이 서글퍼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무료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무의탁노인이었고, 아주 오래전이나 있을 법한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까만 거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심 한 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루디아 회원 중에 이 날 참석해서 시간과 물질로 함께 봉사하신 회원들, 참가하진 못했지만 물질로 후원해 주신 직장회원들의 협조와 교회에서 주신 물질을 합해 하루 배식비용을 그곳에 드리고 그 날 우리는 배식 후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 로마서 공부 오늘로 마감

### -4년 9개월간 강해-

우리교회 찬양예배시에 진행해 오던 로마서 강해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로 막을 내린다.

1998년 6월 28일 시작하여 만 4년 9개월간 강단을 통해 주옥같은 말씀이 교리와 생활을 연결시키면서 선포되었고 이는 매주 화요일 새벽에 기독교 방송(HLKY 98.1MHz)을 통해 전국에 퍼져 나갔다.

로마서 강해를 끝내면서 이종윤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락을 했다.

## 본당 사용금지

### 3월31일(월)부터

내일(3월 31일)부터 주중에 본당사용을 금한다.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파이프 오르간 설치가 완료 될 때까지 갖게 된다.

### 금주의 성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 12:2)

Surely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The LORD,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NIV Isaiah 12:2)

## ▶ 캄보디아 소식 ▶ 김정룡 선교사 특강 ▶

회영실 집사(11교구)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캄보디아 BROW 중족 선교를 하시는 김정룡 선교사는 "복음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하신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650km 떨어진 곳으로 배로 10시간, 차로 6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아직 장년은 없으며, 120명에서 80명 정도의 유?초등부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복음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한 그대로 순종만이 최대의 선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비가 많기에 건물 1층은 방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성경쓰기" 시간과, 저녁엔 "성경통독"의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믿음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을 보고 읽으며 쓰고 듣는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지역사회 개발과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나아가 의료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00이면 마을 회관을 지을

수 있으며, 1년에 한두 번 머리를 감는 현지인에게 어떻게 이·미용 선교를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수질로 인한 피부병과 "옴" 종류의 피부병 등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한다. 영어 열풍이 거기에도 있어 유·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학부모와 약속하고, 일정 시간 영어 공부 후 20분 동안 찬양과 함께 10분 동안 영어로 성경한 절을 외우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지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듯하면 팔고 어디로 가버리는 악습으로 인하여 선교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물건은 큰 인기가 있으며, 특히 의류나 신발류는 더욱 높다고 한다.

단기선교사로 파송 받을 우리는 캄보디아에 흠어진 백성에게 빛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이·미용 봉사자, 의료 특히 양의사 봉사자, 전통무용이나 인형극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수 천 년 동안 흐르는 강물이지만, 이보다 더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뜨거운 사명을 느낀다.

##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갑시다 ①

김희정 전도사(초등부 지도)

갯세마네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9)

제자들과의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내일로 다가온 십자가의 수난을 예비하여 예수님께서 갯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를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와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수행했던 제자들의 잠들어있는 모습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처절한 고독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행하시는 순종을 확인하게 됩니다. 맘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애끓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당신의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신 예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나의 원함을 절제하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락방 모범 사례

##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손성실 집사(13-11다락방)

아직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와서 LTC 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다른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13교구 내의 이미송 집사님의 다락방을 볼 때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다락방 식구들의 명단을 받고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전화로 심방을 약속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심방을 했습니다. 다락방장이 된 후 첫 시간, 기도 제목을 받아 작성하고 다같이 저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심정으로 찬양은 뜨겁게, 말씀은 성령 충만하게 나누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 간단히

식사와 교제를 하고 나니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제마음에 밀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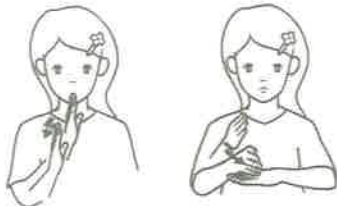
감사한 것은 부다락방장이신 박한옥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다른 가정은 제가 연락할게요"라고 먼저 말해주십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가 모두 헌금위원으로 찬양대로 비전 2020 문서 선교로 또한 안내로 곳곳에 쓰임 받으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날에는 카드에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고 하고 때로는 문자 메시지로 격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늘 가르침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존경하는 우리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은 제게 항상 다락방 식구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한 식구의 낙오자도 없도록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다락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울교회와 모든 다락방 식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1일(월), 4월1일(화)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육 수련회 강사로, 1일(화)에는 서울 강남노회 정치부 모임을 갖는다.
- 이사: 진 돈 장로(11교구) 강동구 성내1동 595 코오롱2차apt 101-1205 484-3688  
· 김은석, 박은진 성도(3교구) 태워 플러스  
· 임순자 권사: 강서구 화곡동 26-9 투원시 APT B-601  
· 임윤자 권사: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407호 현대 APT 204호
- 개업: 안준홍, 이창희 성도 TOP 학습능력개발원 552-8609
- 득녀: 송근화 성도, 이남용 성도 가정(10교구)  
· 김희수 성도, 이혜련 집사(10교구)
- 금주의 식사: 신홍식 집사·김신영 집사가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정말 고맙습니다.

- 오른손 1지 부분을 턱 중앙에 두번 갖다 댄다.
- 오른손을 펴서 왼손등위에 대고 두번 두드린다.

(자문: 임규현 예배다부 담당 목사)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미국·이라크 전쟁 속히 끝나고 이라크에도 복음이 증거 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